

"행복한 진짓상'으로 안부 물어요"

✎ 신승은 기자 | ⓒ 승인 2021.07.28 14:0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봉사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서상기)는 27일 제주시 삼양동에서 농어촌 소외계층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안부를 묻는 사회공헌활동 '행복한 진짓상'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부의 중고물품 나눔행사 판매수익금으로 구입한 쌀도 함께 전달했다.

서상기 본부장은 "사회적 책임과 공사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승은 기자